

본 자료는 2004. 2.25(수), 夕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보 도 자 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	작성과 담당자 전화번호	자본재산업총괄과 김동수 과장 제경희 사무관 02-2110-5616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

금년을 부품·소재 글로벌화의 원년으로

- 일본 부품·소재 투자유치 전문기관 'Japan Desk' 출범
향후 2년간 30개기업의 Green Field형 투자유치 달성 -

1. 부품·소재 글로벌화 추진

- ☐ 산업자원부(장관 이희범)는 금년을 부품·소재 산업 글로벌화의 원년으로 삼고, 지난 2000년 수립된 부품·소재 산업정책의 대대적인 up-grade를 추진할 계획임
 - 2000년 수립된 부품·소재 정책이 국내 부품·소재산업의 역량에 기초하여 국산화·자립화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반면,
 -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립, 한·일 FTA, 중국산업의 급성장 등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부품·소재 산업의 글로벌화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임
- ☐ 산자부는 부품·소재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

① 부품·소재 선진기술의 적극 도입

- 금년부터 유라시아(우크라이나, 벨라루시) 독일 등 부품·소재 선진기술 및 연구인력을 활용한 부품·소재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부품·소재 기업의 글로벌 R&D 역량을 제고할 계획임

- * 유라시아 첨단 원천 기술조사 실시('03.4.12) : 레이저 응용기술 등 801건의 기술 도출, 그 중 129건에 대해 우리기업이 관심 표명
- * 독일의 첨단기술(플라즈마 응용등)에 대해서도 국내기업에의 도입 추진

② 외국의 첨단 부품·소재 기업 투자유치

- 원천기술 부족 및 국내 부품·소재 기업의 해외진출 등으로 생긴 부품·소재 산업의 공백을 외국 첨단 부품·소재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메워나감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첨단 부품·소재 산업의 생산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
- *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부품·소재 투자유치전문기관 'Japan Desk' 출범

③ 국내 부품·소재 기업의 글로벌화

- 금년 1,328억의 부품·소재 기술개발자금으로 반도체, 디스플레이, 2차전지 등 분야에 대해 소재-부품-장비들의 기술개발을 package로 지원하여 부품·소재·장비 등 기반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할 것임
- 특히, 동 분야에 중견·대형 부품·소재 기업들의 기술개발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글로벌 부품·소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할 계획임

④ 국산 부품·소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

- 신뢰성 보험 인수규모를 작년 1조원에서 금년도 1.5조원 늘여 국산 부품·소재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중점 지원하고,
- 특히, 신뢰성 보험지원 대상을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

⑤ 부품·소재 글로벌 기술동향의 체계적 분석 실시

- 금년부터 부품·소재 통합연구단에 부품·소재 연구회를 설립, 분야별·기술별 글로벌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동결과를 부품·소재 로드맵에 반영하여 세계 1등 부품·소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

□ 기타 부품·소재 산업 경쟁력향상 사업

① 국산 부품·소재 신뢰성의 획기적 향상

- 핵심 부품·소재 100개를 발굴하여 신뢰성 평가·인증 및 관련 인프라 구축(270억원)을 지원하고
- 또한 신뢰성 향상 인력·장비가 부족한 중소 부품·소재를 위해 중소기업 신뢰성 향상사업을 추진(65억원)하고 18개 신뢰성 평가센터에 구축된 신뢰성 평가인프라의 장비활용도를 제고('03년 41%→'04년 70% 수준)할 것임

② 기술혁신을 위한 고급 연구인력의 확충

- 부품·소재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망 부품·소재 기업 현장에 1~2년간 석·박사급 연구인력 파견
- 금년에는 200억원을 투입하여 200개사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, 특히 지방 부품·소재 기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
- * '03년까지 450억원을 투입, 442개사에 약 1,000여명의 연구인력 파견
- * 지방 부품·소재 기업 지원비율 : ('03) 43% → ('04) 60% 수준

③ 경영여건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

- 100억원 규모의 부품·소재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부품·소재 기업의 대형화를 지원하고 핵심 부품·소재·자본재 분야의 기술개발, 시제품제작 및 설비투자 등에 1,200억원 융자 지원할 계획임

* 현재까지 4개 투자조합, 500억원 규모의 부품·소재 투자조합의 결성하여 기술혁신형 부품·소재 벤처기업을 지원중

- 기술개발후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부품·소재 기업의 본격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경영서비스 지원

※ 수출마케팅(종합상사), 원가분석 및 경영성과 측정(회계법인), 연구 및 경영 인력(헤드헌팅사), 해외 투자유치 및 기업공개(증권사) 등

2. 「Japan Desk」 출범

- 산업자원부(이하 산자부)는 금일 10시 한국 부품·소재 투자기관 협의회(이하 KITIA, 회장 신용웅)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,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, 다카스키 노부야 Seoul Japan Club 이사장 등 양국 경제계 인사 및 내외신 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Japan Desk」의 출범식을 가졌음

- 일본 첨단 부품·소재 기업 투자유치를 전담할 「Japan Desk」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「일본 투자유망 부품·소재기업 100대 리스트 작성 및 투자전략 수립」('03.6-'04.2 노무라종합연구소)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

- 노무라종합연구소 및 KITIA의 한·일 양국의 투자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여 서울 및 동경에서 일본 부품·소재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One-to-One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임

□ 오늘 출범식에서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일본은 한국의 제2의 투자국으로서 한국에 투자한 일본기업의 수익률이 동남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도레이새한, 태양유전 등의 기업들은 수출과 고용면에서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

○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호의존적인 산업협력관계의 전환이 필요하며

- 특히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·일 FTA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도 최대 대일역조 분야인 부품·소재분야의 대한 투자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고

- 「Japan Desk」의 활동은 이러한 한·일 양국의 부품·소재 분야 투자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언급함

□ 축사에 나선 다카노 주한대사는 한국이 일본의 부품·소재 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이며 앞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일본기업에게 「Japan Desk」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

□ 한편, 「Japan Desk」는 출범과 더불어 인터넷 상에서도 활동을 개시(www.Japandesk.or.kr)하였으며 향후 2년간 30개이상의 Green-Field형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유망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

○ 시장 및 투자 타당성 조사, CEO 초청, 입지 및 조세지원 설계, 합작 파트너 선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술도입 및 한·일 부품·소재 집적지간 교류 사업도 병행할 예정임

□ 산자부 및 노무라종합연구소는 「Japan Desk」의 활동으로 금년 한해 수입대체효과를 통한 대일역조 개선효과가 총 15억불에 이를 것이며

○ 고용창출, 기술이전 등을 통한 파급효과 및 제조업 공동화 대체효과 등 투자유치에 따른 **간접적인 효과**도 클 것이라 전망함

붙임 : 1. 부품·소재 글로벌화 추진 주요사업
2. 「Japan Desk」 개요
3. 「Japan Desk」 출범식 개요

<<참고 1>>

부품·소재 글로벌화 추진 주요사업

① 부품·소재 원천기술 도입을 위한 협력강화

☐ 국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조사·분석을 통해 금년부터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

○ 우선, 지난해 기술조사를 마친 유라시아와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「유라시아 민·관 기술협력단」을 파견(상반기중)

* 유라시아의 부품·소재 핵심 기술 800여건을 조사·분석('03.3~12)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라시아권 부품·소재기술 워크숍 개최('03.12)

* 유라시아의 강점 : 생기반(도금, 열처리, 주물 등), 레이저, 광학기기 광학렌즈, 소재·자동차 신뢰성 등

☐ 국내 기업들의 수요를 토대로 기술·인력도입에 필요한 제도 및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「유라시아 R&D 프로그램」을 시행(하반기중)

② 핵심 부품·소재·장비 기술개발에 집중지원(1,328억원)

☐ 반도체, 디스플레이, 2차전지 등 수출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-부품-장비를 package化 하여 집중 지원

* 현재 전자소재, 전자부품, 반도체·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에 대한 로드맵 수립중

* 디스플레이 등 수요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분야의 경우, 핵심 품목 기술개발과 '수급기업 Fund'를 연계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

- 특히, 차세대 성장동력(차세대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차세대전지)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 추진

* '03년까지 유기EL 등의 핵심부품소재 개발에 239억원(38개 과제) 지원중

-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자동차·기계부품 및 섬유·금속 소재에 대해서도 기술개발 적극 추진

<'04년도 신규 기술개발 지원계획(안)>

방식	분야	지원액	과제수	지원대상(안)
수요	전자부품·소재	250 억원	12개	디스플레이(LCD, PDP, LED) 부품·소재 2차전지용 소재, 무선통신부품 등
기업	반도체·LCD 장비	75	5개	前 공정 장비(PECVD, LCD Track 등)
공동	자동차·기계부품	75	5개	동력조향장치, 냉난방기 핵심부품
개발	섬유·금속소재	90	6개	차량용 경량화 소재, 레저용 섬유소재
	소계	* 28개 과제, 490억원(과제당 평균지원 : 15억원/년)		
	부품·소재기업 단독개발	* 50개 과제, 260억원(과제당 평균지원 : 5.2억원/년)		

* 수요기업 공동개발의 경우, 기술개발 가치평가 결과 분야별 지원규모 변동가능

- 중견기업, 대기업 등 견실한 부품·소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·소재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

③ 부품·소재의 수출산업화 촉진

- 신뢰성 보증을 통한 부품·소재 수출확대

- 금년도 1.5조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부품·소재 기업 대상의 홍보·마케팅 강화
- 특히, 부품·소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뢰성 보증가입대상을 확대하고, 신뢰성보증요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

* 신뢰성 보증 가입대상 : (現) 신뢰성 인증품목 → (改) 신뢰성 평가 센터를 통해 신뢰성 평가를 받은 품목 등을 추가

- 또한, 신뢰성 인증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여 및 e-카달로그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주력 품목으로 육성

☐ 해외 시장동향을 실시간 제공하는 DB 구축

- 자동차·전자부품 등에 대해 해외 시장동향, 바이어정보 등을 제공하는 DB 구축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가속화

* 현재 부품·소재 종합정보망, 전자부품 특화 정보DB 등을 구축중이며, '04년도에 8억원, 2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

④ 부품·소재 로드맵 기획사업 심화

- ☐ 현행 부품·소재 로드맵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6개월에 불과하여 면밀한 사전 탐색기획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

* 품목선정(2개월) → 기술개발 예측 및 사양선정(4개월)

- ☐ 금년부터 분야별 기술·시장에 관한 조사·분석을 수행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로드맵을 수립

<사전탐색 기획분야>

- 국내외 기술동향 : 기업연구소, 공공연구기관, 학계 등
- 국내외 시장동향 : 기업의 마케팅 팀, 협회·단체
- 부품·소재 무역실적 분석 : 기계산업진흥회, 공공연구기관

- ☐ 부품·소재 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·연구·분석·전략수립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할 Think-Tank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부품·소재 연구회 구성·활용

<<참고 2>>

「Japan Desk」 개요

I. 설립목적

☐ 일본 첨단 부품·소재 기업 투자유치를 전담할 「Japan Desk」를 신설하여 향후 2년간 30개 기업 투자유치

⇒ 부품·소재 분야의 만성적인 대일역조 개선

⇒ 일본의 핵심 부품·소재 기술 도입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동북아 부품·소재 공급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

II. 「Japan Desk」의 추진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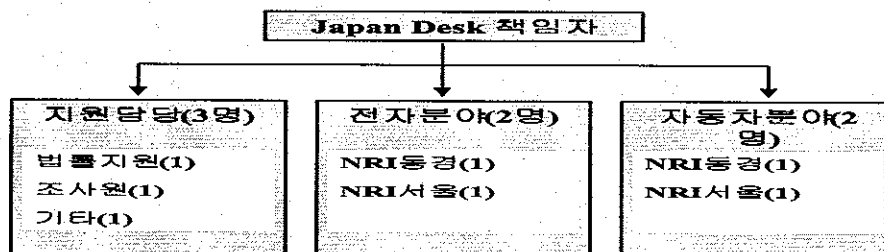
1. I단계(준비) : 「일본 투자유망 부품·소재 100대 리스트 및 투자유치 시나리오 작성」(노무라종합연구소 : '03. 6 - '04. 2)

2. II단계(활동) : 「Japan Desk」 설립 및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

☐ 설치기관 : 한국 부품·소재 투자기관협의회(KITIA)

☐ 인원 구성

▶ 상주인원 : 노무라종합연구소(NRI) 서울지점 및 동경본사 4명, (총7명) 기타 지원 인력 3명



▶ Outsourcing 기관 : 김&장, 삼일회계법인, 도쿄미쓰비시은행 등

☐ 활동내용

- ▶ 30대 타겟기업에 대해 맞춤형(One-to-One) 투자유치 활동 전개
- ▶ 잠재투자기업 및 유력투자기업 리스트의 주기적인 갱신
- ▶ 일본 부품·소재 기술도입 및 우리기업과의 Matching Service 제공

☐ 활동목표 : 2년간('04-'05) 일본 부품·소재 기업 30개이상 투자유치

- * 투자유치의 기준 : 투자신고 혹은 본계약 체결
- 투자기업 : 부품·소재 기업에 한정
- 투자금액 : 기업당 3백만불 이상
- 투자형태 : Green Field형 투자

III. 기대효과

☐ 직접효과 : 수입대체효과를 통한 대일 무역역조 개선

- ▶ 수입대체효과('04) : 총15억불 / 노무라연구소 분석
 - ◆ 전기·전자 분야 수입대체효과 : 14억불
 - ◆ 자동차 분야 수입대체효과 : 1억불

☐ 간접효과 : 산업 구조 고조화

- ▶ 경제적 측면 : 고용창출, 기술이전 등을 통한 파급효과 및 제조업 공동화 대체효과
- ▶ 정책적 활용 : 정부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개선점 제공

<<참고 3>>

「Japan Desk」 출범식 개요

□ 일 시 : 2004년 2월 25일 (수) 10:00 ~ 11:00

□ 장 소 : 한국 부품·소재 투자기관 협의회(무역회관 12층)

□ 참석자(총26명)

○ 한국측(총13명)

- 산자부 : 장관님, 자본재국장, 자본재산업과장, 투자진흥과장
- KOTRA : Invest-Korea 단장, 주력산업팀장
- 기 타 : 부품·소재 투자기관협의회(KITIA) 회장, 신한은행장

○ 일본측(총13명)

- 대사관 : 주한 일본대사, 경제참사관
- SJC 회원 : SJC 이사장, 한국 미츠이 사장, 한국 미츠비시 사장 등
- 기 타 : 노무라종합연구소 사장, 도쿄미츠비시은행 서울지점장, JETRO 소장, 일본상공회의소장

□ 행사진행순서

시 간	내 용	발 표 자
10:00 - 10:05	현판식	
10:05 - 10:10	장관님 격려사	산자부장관
10:10 - 10:15	축 사	일본대사
10:15 - 10:20	축 사	KITIA 회장
10:20 - 10:25	축 사	SJC 이사장
10:25 - 10:30	축 사	노무라 사장
10:30 - 10:35	「Japan Desk」출범경과 보고	자본재산업과장
10:35 - 10:50	「Japan Desk」 활동전략	「Japan Desk」
10:50 - 11:00	「Japan Desk」시찰 및 이석	